

자동화 시설 장 · 단기 계획으로 실천해야 성공한다.

정리/김동진기자



김상길사장과 부인최피예씨

새 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
리는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닭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몸소 실천해 왔다.
채란산업은 초창기에 비해 많은

내·외적 발전을 해온게 사실이고
많은 양계업자들이 전업하거나
신규로 들어오면서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오직
채란양계업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근 우리
에게 불어닥친 수입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양계업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상길
사장을 만나 사업구상을 들어
본다.

선린농장을 경영하는 김상길
(53세)씨,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은 학업때문에 타
지에 나가있고 부인(최피예, 50
세)은 광주농장을 돌보고 있다.
김사장이 여주농장으로 떠나면
가족은 모두 흩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양계업을 가업으로 이어받기
위해 아들이 축산대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고 부인이 광주 선린농장을 맡아주니 여간 힘이 되는게 아니다. 오늘도 '계획 속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채란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1천수로 채란양계 시작

어렸을 때부터 등지에서 알을 생산하여 장에 내다파는 것을 보아오며 자랐기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 축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0년대 중반 군생활을 마치면서 그 당시 영세한 농촌실정을 파악하고 4H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양계에 발을 들여놓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목사님이 지역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농촌계몽활동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는 축산과 과수 등을 겸비한 복합영농을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 처음 2년동안은 양고라를 사육하기도 하였으나 여건상 맞지 않아 양계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험이 없는 터라 기술·자식을 얻기위해 양계인들이 모이는 곳에 참석을 하였고 농장에 가서 직접 실습도 하였다. 드디어 '73년 1,000수로 양계를 시작하면서 선린농장을 키워갔다.



직접 집란하며 계군을 살피기도

○풀을 썰어 먹일 초창기에는 95%의 산란율을 유지

전업으로 채란에 발을 들여놓은 70년대 초에는 주위농가들이 영세하여 300~500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보통이었고 만주 사육농가는 드물었으며 1,000수 정도라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선린촌에는 업자들이 한두명씩 늘어나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등우리와 노천계사에서 사양을 하는 농가가 많았지만 케이식으로 사양을 하는 농가도 약간 있었다. 부지설정이거나 기타 제반사항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사료의 경우 배합사료의 보급이 불충분해 주로 풀을 썰어 먹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균 95%의 산란율 보였음은 물론

성성숙일령단축, 생존율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아주 좋았다.

유통면에서는 지금처럼 G·P 시설은 생각지도 못했으나 직접 마을에 직영직매장을 설치하여 내다 팔았다. 그 당시는 판매가격이 7~12원할 때였고 소비자들이 계란을 구하기 힘들 정도였으므로 생산자가 판매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 중간상인들의 역할이 지금과 같이 강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산자가 주도되어 수익면에서 관촬아지자 과잉생산이 유발되어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도권이 상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유통의 혼란이 여기에서 부터 기인된 셈이다.

○진정한 양계업을 찾아 여주로

75년도 사업자등록법(당시 영업감찰번호)이 제정되면서 양계

업자들은 약간씩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는 계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0년대 들어서면서 3,000수 정도로 확장을 했는데 당시 그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반자동 사료급이기가 출현하면서 인력난도 많이 해소되었다. 80년대 중에 니플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적용하는데 문제도 많았으며, 사회여건상 전업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더우기 폐수 및 오수처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양계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양계인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여러곳을 전전하며 정착해온 선린촌에서 양계업을 계속하는데도 제약이 따라 내일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 아래 차기 양계장으로 물색한 곳이 바로 여주군 북내면 상암리에 위치한 산기슭이다.

처음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망설였고 마을 한복판으로 폐기물이 흘러가 산란을 시작한 농가에 계 주민들이 민원투서를 해 양계업을 그만두는 농가들이 눈에 띄면서 부지설정은 더욱 중요한 난제로 부각되었다.

처음 크게 부딪친 문제들은 주민들과의 신뢰성 정착, 유통문제, 오수처리문제 등이 있는데 TV나 신문 등에서 환경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계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해 인근 주민들로 부터 신뢰성을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낡은 차를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과 똑같이 어려운 농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장이 잦은 차를 타야 하는가 하면 세면도 하지 않은채 다니기도 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선린농장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만약 계란출하시 교통이 좋지않

아 보통가격보다 3원 이하를 받게 된다면 현재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농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할 계획까지 했었다.

7년동안의 노력 끝에 지금은 14,000평 규모의 양계단지(상암리에 마련되었다. 사육수수는 4개동에 4만수가 있는데 한동의 육추사에서는 12,000수의 어린 병아리가 자라고 있으며, 나머지 3개동에서는 2만5천수가 산란하고 있다. 부부팀 2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한쪽에는 숙소를 마련하였으며, 성계사 옆에는 300평 정도의 계분건조장을 설치하였다.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1개동이 아직도 시축중이었으나 남아 있는 부지 5,000평에는 완전 자동화 계사를 지어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가능토록할 구상을 펴고 있다.

○ 완전 자동화 계사 대 이을 아들과 함께 작업 착수 예정

모든것이 상대성이 있다. 광주에 부인이 경영하는 1만수 규모의 2개동 계사를 남겨놓은 것도 앞으로 유통문제나 그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30여년간 양계에 몸을 바쳐오며 이대로는 양계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로 했다.

상지대학교에서 축산을 전공하



완전자동화 계사가 지어질 여주농장 전경

는 사덕군은 국민학교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꾸어온 터이기에 뜻을 양계장을 통해 펼쳐 보겠다고 하여 현재 아버님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많은 것을 직접 배우며 컴퓨터시스템까지 갖추고 양계업을 발전시킬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92년에는 완전자동화 계사 공사를 착수하게 되어 3만수규모로 정착시킨 후 남은 부지에는 실정에 맞게 양계장을 계속 증축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면 최소한 입추수수 6만수규모는 되어야 한다지만 경험상 한부부가 12,000수정도 관리하면 적당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아직도 제한여건이 빈약하므로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함을 강조했다.

○ 정부와 관련단체의 협조가 필요

앞으로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채란계 뿐 아닌 양계산업은 더욱 힘들어지리라 보고 있다.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쌀이나 다른 농산물만을 강조할게 아니라 우리 양계업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양계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요즘 질병은 경험만 가지고는 힘든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수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그렇고 예방을 했더라도 새롭게 발생하는 병 때문에 사후처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정부기관, 협회, 사료·약품회사 등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 산란율 85%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종개량사업도 시급한 실정이다. 육종개량사업이 잘돼야 종계장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G·P사업에 대한 필연성을 느껴 '89년 처음으로 강조, 시도해왔지만 상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해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 G·P가 어느정도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으로 보지만 생산부분과 유통부분을 체계적으로 분리시켜 운영하게 되면 앞당길 수 있으리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참여자가 그에대한 댓가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대안, 방법이 미약했기 때문이고 무임승차가 많아 참여자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길은 끊임없는 연구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소비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길이다.

○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목표를 세워야

처음 양계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김사장은 돈만을 목적으로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지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철저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노력해 간다면 경험에 비추어 앓될 것이 없다고 조언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혼자일 수 없듯이 양계업자 자신들도 자질을 갖추 지역별로 공동체를 만들어 현재 실정에 맞는 길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산란율을 높일 수 있는 육종개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개선, 서로가 공동운영체라는 축산인들의 마음가짐, 정부기관의 정책적인 협조, 국민들의 호응도 등이 겸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양계인들은 자기일에 전념하며 그 보답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첫 인상만 보고서도 정감이 가는 후덕한 김상길사장…….

지금도 내일의 양계산업을 걱정하며 정보를 얻어 더 완벽한 양계업을 하기위해 지역활동은 물론 회의,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부지런한 마음가짐으로 일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 **양계**